

“작은학교 대상 더 큰 지원 약속”

서거석 교육감, 완주서 교육정책 간담회 열고 학부모 등과 올 10대 핵심과제 공유

서거석 교육감이 완주군을 방문해 작은 학교에 대한 더 큰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어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작

은학교 살리기 △기초화력 책임제 △미래교육 환경 구축 △교원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학생 해외연수 확대 등 올해 10대 핵심과제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농촌유학과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를 소개했다. 이는 시·군 경계를 허물어 전주 학생들이 완주 지역 학교로 다닐 수 있는 ‘광역형’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공동통학구형 어울

림학교 확대 계획을 크게 반겼다.

한 학부모는 “도시의 큰 학교 학생이 시골의 작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울림학교 시·군 경계를 풀어준 것을 환영한다”며 반겼고 한 교직원은 “큰 학교 기준인 800명 이상을 완화해 전주의 많은 학생들이 완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현재 아이들이 전주에서 완주 학교로 다니는데, 통학 차량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면서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삼봉지구 중학교 조기 건립, 구이 고등학교 신설, 삼례중앙초등학교 옥상코치 배치, 특성화고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공동통학구형 어울림 학교를 광역형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작은 학교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이라며 “어울림학교의 큰 학교 기준 완화 및 학생 통학 지원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4개 시·군 순회 교육정책 간담회는 교육 현장에서 10대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파악해 현장 맞춤형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고창군을 방문해 교육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전북도교육청은 19~20일 이틀 간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2023년 계약 업무담당자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신장

도교육청, 맞춤형 교육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20일 이틀 간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2023년 계약 업무담당자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도교육청 산하 계약업무담당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과 계약 유형별 업무 처리 절차를 안내해 업무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물품·용역·공사 계약 일반 △입찰 공고문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2단계 입찰 제안서 평가 △공사계약 실무사례 △중소기업 제품 구매제도 안내 △중증장애인생

상품 우선 구매제도 안내 △'전북교육장터' 운영을 통한 지역업체 제품 우선 구매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 소개 및 구매를 적극 안내하고, 2023년 지역업체 제품 우선 구매 추진 우수기관 업무담당자 시상식도 가졌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신뢰받는 계약 업무 추진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국제개발 협력 분야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 마련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원 '인디코드' 릴레이 개최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과 국제인문사회학부, 그리고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가 국내 처음으로 국제개발 협력 분야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인 '인디코드'를 릴레이로 개최한다.

이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 세미나 시리즈는 지난해 11월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원(부원장 문경연)과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박홍식)에서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발협력 전문가 월례 세미나 시리즈를 기획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8일 제6차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의 대주제인 '인디코드(INDICODE)'는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Delights'의 약자로 '개발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누군가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NGO 활동가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각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의 강연과 ODA토크를 강의실 현장과 온라인(ZOOM)에서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현장의 핵심 내용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 하여 시간간의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한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국제개발협력 콘텐츠를 제공한다.



6차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송영훈 강원대 교수.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이번 제6차 세미나에서는 '우리와 그들 경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란 주제로 난민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강연대 송영훈 교수가 나와 강연과 ODA토크를 진행했다. 빈곤, 분쟁, 경제발전, 환경, 건강 등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는 국제개발협력의 A부터 Z까지 체계적으로 다뤘다

이어 오는 5월 19일에는 '국제개발협력 이상과 현실: 우아한 현장은 없다'를 주제로 서강대 김영연 교수, 6월 8일에는 '국제개발협력과 평가: 평가는 왜 하나?'를 주제로 부산외국어대학교 홍민숙 교수, 국제개발협력에서 빠

질 수 없는 책무성과 관련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김태근 교수의 강연 등 매월 등 인디코드는 매월 다양한 흥미로운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인디코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063-270-4950)로 문의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세미나는 매월 전북대 진수당 382호에서 진행된다

유튜브는 매월 현장 세미나 후 인디코드(https://www.youtube.com/@jnuindicode)에 업로드 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에스와티니 국무총리 22일 전주교대 방문

오는 22일 클레오파스 블라미니 에스와티니(옛 스와질랜드) 국무총리가 전주교육대학교를 방문한다. 에스와티니는 인구 117만명의 남부 아프리카 절대 왕정 국가다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블라미니 총리는 전주교대와 학생 및 교수 교류,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박병춘 총장과 면담한 후 대학의 주요 교육시설을 탐방할 예정이다

이에 전주교대는 블라미니 총리에게 개교 100주년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특별전시회를 안내하고, 초등 미래교육을 위해 구축한 미래교육센터에서 실감미디어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학 육성사업 재원으로 리모델링한 강의실에서는 2017년 전주교대 학생들이 에스와티니에서 실시했던 봉사활동 영상 자료도 시청한다

전주교대는 이번 에스와티니 총리와의 만남을 통해 국제교류와 협력으로 양국의 교육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기업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채용설명회 성료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기업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학 본관 5층 시청각실에서 열린 일일오피스 채용설명회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일일오피스 인사 담당자가 직접 나서 기업소개 및 채용 관련 안내 등을 설명한 후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18일 오후 1층 지역협력세미나실에서 열린 채용설명회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 100여 명이 찾아 (주)하림·(주)한우물·신라호텔 제분 등 기업 인사 담당자들로부터 모집 분야와 채용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신라호텔 제주는 직무별 채용 현장면접도 진행했다

이승미 대학일자리본부장은 “해당기업과 희망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채용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기업 발굴과 함께 지역 청년의 일자리 매칭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단위학교 진로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도교육청, 진로체험지원단 컨설팅 교육 실시... 15명 참석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단위학교의 진로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진로체험지원단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중등교육과 협의실에서 진로체험지원단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진로체험지원단 15명이 참석, 학교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진로체험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학교별 특색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 △진로체험프로그램 우수사례 정보 제공 등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총 281개교가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운영계획서 컨설팅 시 문제점 지적보다는 학교 지원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장 컨설팅 요청하는 진로체험지원단이 직접 학교를 방문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컨설팅의 기본 방향은 학교 및 현장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진로체험지원단의 컨설팅을 통해 학교가 학생중심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다문화가정 학부모·자녀 자긍심 'Up'

도교육청, '2023 다꿈부모나라 언어교실 협의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2023 다꿈부모나라 언어교실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다꿈부모나라 언어교실을 운영하는 도내 유치원·학교 10개교(원)와 교육청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해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꿈부모나라 언어교실은 방과후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이중언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뿐만 아니라 비다문화 가정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자

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전북교육청은 다문화정책 학교 다문화정책추진원, 다꿈사랑방 학교, 다꿈사랑방유치원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학교 적응을 돕고 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은 “이중언어 교육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감정 개발 및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문화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모델 및 교육 자료 개발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진안교육지원청, 2023년도 진안학부모협의회 개최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경)은 19일 진안특수교육지원센터 3층 은누리방에서 각급학교 학부모회 회장 20여 명이 참석하는 2023년도 상반기 진안학부모협의회를 개최했다

진안학부모협의회는 진안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된다

이번 협의회는 2023년도 진안학부모협의회를 이끌어야 할 임원을 선출하고, 규정 및 각급학교 학부모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하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었다

또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하여 커뮤니티 활동분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장으로 선출된 임준연 회장은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 소통하여 진안 미래세대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진안학부모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교사 정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수급 선정기준을 학급 수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요구를 무시한 채 교사 정원을 축소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집권여당과 교육부장관이 함께한 당정협의회에서 교사 수 감축 방침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7개 시도 중 5개 시도는 학급수는 증가했는데 오히려 정원은 감소했다”며 “전북의 경우 초등은 학급 수가 36개 줄었는데 교사는 62명이나 줄었고, 중등은 학급 수가 17개만 줄었는데 교사는 140명이나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교원수급기준을 학급 수가 아니라 학생 수로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결국 군 단위 작은 학교들은 순회나 상차(다른 교사를 가르치는 것) 및 업무 증가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수준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도시지역 큰 학교들은 학급 수 감축요인으로 작용해 학급당 학생 수가 더 늘어나는 과밀 현상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올해 전북지역은 초등의 경우 학급수가 줄고 휴직 후 복직하는 교사 수가 휴직자보다 많아 감축분이 겨우 해결되었지만, 내년에는 어떤 어

려운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 중등의 경우 정원의외간제 120명을 확보하고 순회를 늘려 감축 정원을 메꿔야만, 정원의외간제 제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공약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탓에 초등학교 1학년만 적용하고 그 이상 확대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정부와 교육청이 고교화정책,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학습지도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수의 교사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